

고금리에 채권으로 개미 ‘우르르’… 특판채권 ‘완판행진’

개인투자자 채권 매수세 급증
올해 들어서만 1.4조 사들여
증시 침체에 매력 투자처로 부상
온라인 채권 판매 규모도 확대

높아지는 금리에 채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자들의 수요에 발맞춰 증권사가 출시한 특판 채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온라인을 통한 채권 판매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채, 기타 금융채(여전채), 국채, 특수채 등 채권을 21조 4000억원 순매수했다. 2021년 순매수 규모(4조 5000억원)와 비교했을 때 4.7배 급증했다.

금투협은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침체로 개인투자자들의 안정적인 고금리



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1조 3900억원 어치의 채권을 사들였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 기금 공제, 보험 등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수요가 늘어나

자 증권사들은 채권 특판 상품을 내놓고, 관련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일 총 150억원 한도로 특판 채권 2종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신한은행25-04-이-2.5-B)’과 ‘산은캐피탈(산은캐피탈666-2)’로 이를 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어 대신증권은 1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411-2)’을 추가로 출시했다. 영업지점과 온라인 창구를 통해 판매했으며, 최소 주문 단위는 1000 원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10일부터 세전 연 5.30%, 만기 3년물의 현대캐피탈 선순위 채권을 특판 상품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3월까지 채권 타사대체입고 이벤트를 실시한다. 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자사로 입고하는 고객에게 순입고 총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온라인을 통한 채권 투자 편의성 향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은 채권을 1000원 등 소액 단위로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온라인 채권 판매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

다. 전년 대비 약 160% 이상 증가했다. KB증권도 채권 판매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8% 가량 급증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하락세에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5%를 돌파했던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는 최근 3~4%대로 내려왔다. 저축은행 역시 6% 대에서 5%대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국채와 안정적인 우량등급 회사채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물가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장기채 매수를 통한 드레이션 베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스프레드(가산금리) 축소 여력이 크고 만기가 짧은 고금리 크레딧 위주의 채권투자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증권사 CMA 수익률 오르는데, 인기 ‘시들’

지난 13일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 속에 증권사들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지만 CMA 잔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증시 유동성 위험을 피해 여타 금융권의 안정추구형 상품으로 관련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이전의 자금공급원 역할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결정 뒤 일제히 CMA 수익률(이자율) 인상을 공지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단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급여 이체와 카드대금 납부, 체크카드 사용 등이 가능해 예금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증권사의 CMA 수익률은 1%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대형 증권사의 CMA 수익률이 수시입출방식이더라도 연 3.0% 이상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키움증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CMA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오는 16일부터 인상한다. 일반



CMA RP는 기간에 따라 ▲7일(3.05%→3.30%) ▲15일(3.10%→3.35%) ▲30일(3.15%→3.40%) ▲60일(3.25%→3.50%) 등 연 수익률(세전)을 각 0.25%씩 인상한다. 법인 수시 RP의 경우도 3.45%로 변경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 후 이율도 기존 1.70%로 0.20% 포인트 인상한다.

삼성증권도 오는 16일부터 CMA RP 상품의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 3.00%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시 입출식 RP는 개인과 법인 모두 0.25% 포인트 인상해 각각 3.00%, 3.15% 수익률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법인 Wrap형 CMA 세전 수익률을 0.25%포인트, 한국투자증권은 MMW형 법인 고객의 수익률을 0.25%포인트, NH투자증권 QV CMA MMW 법인 고객의 수

익률을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CMA 수익률이 꾸준히 높아졌지만 CMA 인기는 떨어지면서 잔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CMA 계좌에 개인 고객이 예치한 잔액은 47조 40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말(60조 5784억원)보다 13조원 이상 급감한 수치다. 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4월(61조 273억원) 이후로는 60조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49조원대를 기록하면서 50조원대마저 무너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MA가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니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면서도 “발행어음형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 파킹통장 보다 금리가 낮다보니 투자 매력도에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경기 양주 등 전국 5곳서 2663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3가구(일반분양 11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2차 대광로제비양센트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

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덕산초, 덕계중 등이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 예정이며, 덕계천 수변공원과 덕계 균린공원 등이 위치했다.

태영건설은 전북 익산시 부송4 도시 개발사업지구 B블록에서 ‘익산부송 데시앙’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84m², 총 745가구 규모다. 궁동초, 어양중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산병원, 원광대병원, 부송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김대환 기자 kdh@

美 태양광 생산단지 구축… IRA 수혜 기대

metro 관심종목

한화솔루션

美에 3조2000억 대규모 투자
세제혜택 약 8조 등 정부 지원
주가전망 ‘맑음’… 목표주가 상향

한화솔루션의 미국 투자 소식에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에 대규모 태양광 생산단지 구축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0년간 약 8조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한화솔루션의 향후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전일 대비 250원(0.52%) 내린 4만 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1일 한화솔루션은 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각각 연 3.3G W 규모의 잉골·웨이퍼·셀·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신설하고, 현재 연 생산 능력 1.7GW인 모듈의 생산량은 추가 증설을 통해 총 8.4GW로 확대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IRA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IRA가 발효되는 올해부터 세액 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영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시장을 겨냥해 차별적인 공급망 구축 및 판매량 확대 등을 추진, 2026년까지 미국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량은 매년 30~4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국 모듈 가격이 IRA와 같은 장기적 정책적 지원과 탈중국 벤류체인(가치사슬)을 위한 관세부과 등으로 인해 기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번 미

〈한화솔루션 목표주가〉

| 증권사 | 목표주가 |
|---------|----------|
| 현대차증권 | 7만 7000원 |
| 흥국증권 | 7만 5000원 |
| DB금융투자 | 7만 4000원 |
| NH투자증권 | 7만 1000원 |
| 삼성증권 | 6만 8000원 |
| IBK투자증권 | 6만 8000원 |
| 미래에셋증권 | 6만 6000원 |
| 유진투자증권 | 6만 원 |

/각 사 취합

국 생산·판매 비중 확대로 IRA 세제 혜택 및 모듈 평균 판매가격의 상승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의 4분기 실적 개선 또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유진투자증권은 한화솔루션의 지난 해 4분기 매출을 2021년 대비 22% 증가한 3조 6000억원, 영업이익을 2021년 대비 267% 늘은 3090억원으로 전망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인도 수요 증가로 4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화학 사업도 재고손실 감소로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솔루션의 향후 주가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증권사에서 IRA 수혜, 실적 개선 등으로 한화솔루션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2일 DB금융투자는 한화솔루션의 목표주가를 기존 7만 1000원에서 7만 4000원으로 올렸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IRA 효과에 힘입어 2024년 이후 본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대규모 제조설비를 구축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의 경쟁력 차이는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단기·원가 차이로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영업이익 추정치를 2025년 1조 4000억원, 2026년 1조 6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원관희 기자 wkh@